

어와나에서 커가기



[아이들에 대한 불타는 교육열정과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아니었다. 집이 떠나가 교회에 어차피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아이가 혼련 받는 동안 딱히 할 일도 없고, 교사를 하면 우선적으로 입단 시켜주고 회비도 대폭 삭감해준다는 말에 솔깃하여 (ㅋㅋㅋ)...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어와나 교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싶어 시작한 어와나는 내 아들보다 나를 더 많이 키워주었다. 물론 아침마다 아이와 함께 두 구절씩 암송을 해도 난 저녁이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암송 할 때마다 받는 영광의 뱃지도 아이보다 적게 획득했으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내게 '어와나 교사'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

어와나 교사는 아이들을 말로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과 트랙에서 함께 뛰며 게임하고, 집에서 외워온 성경 말씀을 체크해주고 독려하며 다음주 프로그램을 준비 시키는 것. 아이들은 성경 암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어와나 게임을 통해 질서와 다른 이를 돕는 법을 배워가지만 나는 아무 수고함 없이 그저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함께 성장한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는 부산스러운 아이들이지만 외운 말씀을 기억해내느라 아주 잠깐 진지해 지는 아이들의 눈은 정말 빛난다. 장난치느라 정신없다가도 게임 시간에 자신의 팀을 위해 트랙에서 온 힘을 다해 뛰고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면 난

그 성과에 상관없이 열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간다.

바라건대, 외우는 수많은 말씀 중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거룩한 이유를 알려주는 단 한 구절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힘 있는 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2인3각 게임을 할 때처럼 자신의 한 쪽 다리와 어깨는 다른 이를 돕는 데 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교사로서의 내 기도다.

말씀으로 무장된 이 아이들이 커서 이 땅에 떨칠 선한 영향력을 기대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멋진 아이들이 잠시나마 나를 통해 지나가는 것이 감사하여서 두근두근 가슴이 뎀다. 10년 후 내 아들과 이 아이들이 다시 이곳에서 나와 함께 어와나 선생님을 하면서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내 새로운 소망이다.

김유경 (AWANA T&T교사)

고 3! GO 3!



21일 서울 잠실 주님의교회에서 유성훈 목사가 고3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며 진로를 지도하고 있다. 구성환 기자

고3 학생들은 수능을 마치면 조금 쉬고 싶고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거리를 배회할 수밖에 없다. 고등부에서는 5년 전부터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과 함께 마음껏 노는 장을 마련하여 지내고 있다. 분위기는 좋은 카페를 정하여 식사를 하며 함께 밤을 지내며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꿈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이 활동이 국민일보에 소개되어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일보에 소개된 사진과 기사를 소개한다.

유성훈 (서울 잠실동 주님의교회 고등부 담당)목사는 지난 15일 수능시험 당일 저녁 수험생 20여명을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인근 카페 웨리트로 데려갔다. 산성에 오른 뒤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각자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하는 만큼 성적을 얻지 못해 우울했던 박해윤(17서울 정신여고)양은 "내 옆 친구는 정치인, 다른 친구는 경영인이 되겠다고 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즐거워졌고 눈술 등 앞으로 대입 준비에 더 몰두할 힘이 생겼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2007.11.22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



12월 3일 새벽 5시, 유난히 매서운 추위를 뚫고 정신학원 교문을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500여명의 성도들이다. 이 기간 박원호 목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을 강해했다고 구역 식구들은 교구별로 특송을 맡았다. 요한계시록강의는 평일 새벽기도회 시간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새벽기도회는 평일 오전 5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있다.

이정에 기자

나의신앙이야기

“주님의 말씀이 열방으로 흘러갈 때 네가 그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세언아, 아빠와 엄마는 널 무척 기다렸단다. 왜냐구? 네 형 지언이가 6개월 때부터 많이 아팠었거든. 형의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께 널 달라고 기도 했고 하나님은 널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단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중의 은혜라고 생각하여 태명을 은혜중이라고 불렀단다. 태중의 너는 유난히 활동이 많은 아이였어. 공주일까? 왕자일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건강한 아이이면 됩니다”라고 기도했었지. 네가 태어나고 또 이름을 지을 때까지 넌 계속 은혜였단다. 그 이유는 넌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온 선물이기 때문이야. 이왕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 세언이라는 이름에 대해 말해주고 싶구나. 네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지으려 했는데 좀처럼 쉽지 않더구나. 여러 개의 이름을 지어 놓았지만 썩 맘에 들지 않았지. 결국 엄마와 합작하여 권세 세(勢) 말씀 언(言)을 사용하여 勢言(권세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 그 의미는 주님의 권세의 말씀을 세상 곳곳에,



권세의 말씀이 열방으로 흘러갈 때 세언이 네가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정한 이름이란단다.

세언아, 널 통하여 엄마는 많은 것을 느낀단다. 네가 없으면 결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지. 첫 번째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이란단다. 결혼하기 전에 또 네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느꼈다면 맘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가슴으로 느끼는 거란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란단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에 대한 마음과 그 깊은 사랑을 깊이깊이 배워간단다. 그러면서 영적인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단다. 세 번째는 삶의

깊이가 더해 감을 느낀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많이 달라져 있음을 느낀단다.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언아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우리 세언이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란단다. 엄마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네가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세언이가 가장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을 하되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바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생각하며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며 일어설 줄 아는 멋진 사람, 성실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란다.

세언이의 엄마 김미숙 집사(1-4)

<윤세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10년간 선교활동을 한 윤영수 선교사(1-4)의 둘째아들로 형의 소아암 완치 후에 얻은 아들이다.>

|오늘의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
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
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49:14-15

통 권 제 219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7년 12월 16일

함즐함울

www.pcltv.org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눅2:6-7)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했던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적어도 아기를 낳을 자리는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갑작스럽게 호적신고를 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고,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떠났건만

하룻밤 머물 곳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니

내가 만일 마리아였다면 매우 섭섭했을 것 같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남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 해산을 위한 방 하나만은 남겨 두실 수 없었을까?

이러한 생각도 잠시, 나의 눈길은 말구유에 누워계신 예수님에게로 옮겨졌다...

냉정한 현실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만삭이 된 산모가 방 하나 얻지 못했듯이

아기 예수님 역시 냉혹한 현실,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셔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왜 이렇게 내 생각만 하는 걸까?

주님은 나보다 더 못한 현실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는데...

내게 오시기 위해 그 더한 어려움도 감수하셨는데...

예수님은 가장 약하고 작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구유 같은 내 마음에 찾아 오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찬송가112장)

엄혜숙 집사(4-22)

말구유 같은 내 마음에 찾아 오시기 위해...

모집합니다

●기도 어머니: 정신여고생들의 멘토역할로 만남과 기도 사역
*문의: 김영숙 권사 011-9774-3062 (관련기사 3면)

●어와나 교사: 어와나 게임 및 성경 교사
*문의: 최성진 집사 016-228-7423 (관련기사 4면)

●청소년사역본부 자원봉사자: 청소년 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과 경험자
*문의: 김완중 장로 017-216-3372



30CUP 찬양예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시편11-6

- 일시: 오늘 오후 3. 30
- 장소: 대예배실
- 말씀: 김현령목사

담임목사 주일설교

2면

사랑의 수고 _ 경조부, 방파후학교, 호스피스부

3면

나의신앙이야기_김미숙

3면

어와나에서 커가기_김유경

4면



사랑의 수고, 참 평화의 길 미가서 5:2~5 누가복음 2:1~7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짐이 주어진다면 감당하시겠습니까? 만일 로마의 길과 이들의 길을 선택하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일 년에 한 차례씩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감당했던 그 사랑의 수고를 나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절기인 크리스마스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가이사 아구스도가'입니다. 그의 호적 명령이 이 땅에 가장 위대한 구세주의 탄생을 이룬 완벽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500마일 떨어진 로마에서 발행된 호적 명령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던 젊은 부부로 하여금 낯선 마을로 가게 했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곳이었습니다(미가서5:2).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 된 몸이었고 90마일이나 떨어진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아기를 낳겠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갔습니다. 미가의 예언 때문이 아니라 로마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산모와 아기의 위험을 무릎 쓰고라도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간은 이른 저녁이었고 남편 요셉은 황급히 머물 곳을 찾게 됩니다. 이미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관을 찾을 수 없었던 이들은 결국 마구간이라는 역사에 남을 만큼 드문 장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하루만 늦었다 라도 아기는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써 메시아의 탄생은 수백 년 전 미가가 예언한 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떡 집'이란 뜻을 가진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생명의 눈물이 있는 땅입니다. 아콕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노상에서 죽어 묻힌 곳입니다. 나오미가 기근으로 인해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자식을 잃고 이방 며느리 룯과 함께 쓴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던 곳입니다. 눈물과 슬픔 그리고 생명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했겠습니까? 오늘 누가가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령을 기록한 것이, 두 사건을 함께 기록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무력과 인간의 도구로 세상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작했을 때, 가난하고 나약한 부부와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의 가족은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둘을 대조시킬 수 있었습니까?

한 편은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로마 황제입니다. 다른 한 편은 거역할 수조차 없는 불쌍하고 나약한 가난한 동네의 한 작은 가족입니다. 한편은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진 황제입니다. 다른 한편은 자신의 삶조차 연명할 수 없는 갈릴리 촌부입니다. 더구나 식민지 백성입니다.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함께 놓은 누기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 평화의 길은 로마의 길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걸어간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참 평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평화의 삶과 생명의 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힘들지만 평화의 삶을 선택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평화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십시오. 이로 인해 평화로 인한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짐 역시 여러분이 지셔야 합니다.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말할 때 그 사실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들은 당시 관습으로 돌을 맞아야 합니다. 설령 이를 피한다 할 지라도 이들은 평생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아기예수의 탄생은 그들에게 고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짐을 지실 수 있었습니까? 이 생명의 짐을 지실 수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을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려운 생명들, 눈물 있는 생명들, 아니, 생명 자체를 사랑하는 짐을 지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소망은 달랐습니다. 나사렛에서 편안하게 살고 안정되게 사는 삶에서 생명의 눈물이 있는 베들레헴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예수의 눈물을 함께 봤습니다. 이들의 삶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삶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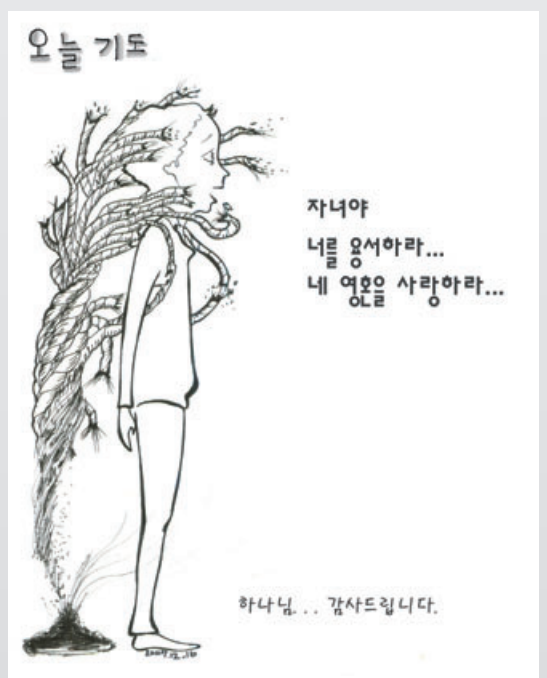
사랑의 수고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사랑의 수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아무 조직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있었습니다. 황제에

게 있는 권세도, 재력도, 무력도 없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받아들였고,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짐이 주어진다면 감당하시겠습니까? 만일 로마의 길과 이들의 길을 선택하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일 년에 한 차례씩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감당했던 그 사랑의 수고를 나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 당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에게도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들의 삶이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는 도구의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사랑의 수고로 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길가에교회 창립 2주년 기념예배



남양주... 아무연고도 없는 그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12월 11일 오후 3시 동화고등학교 여호수아홀에서

길가에교회(담임목사: 이인호) 창립2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예배가 있었다. 길가에교회는 주님의교회의 첫 번째 교회로 창립2주년을 맞아 박원호담임목사가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고 주님의교회의 많은 교우들이 함께하여 축하했다.

길가에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주님 주신 사명을 기도와 땀흘림으로 이루어가고 있다. 또한 뜨거운 열정으로 봉사하고 교회라는 나무 달린 모든 가지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다.

신형섭 기자

사랑의 수고는 생명을 살립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생명과 눈물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씨앗을 뿌려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조부 | 영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의 삶이 유한할 진대, 일백 년도 못살면서 천년만 년, 아니 영원히 살겠다는 듯 우리는 죽음을 잊은 채 오늘을 산다.

이틀 전에 같이 예배드리던 한 형제를 어제 입관 하고, 오늘은 하관했다. 돌아오는 무거운 발걸음...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지 않으면 정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에,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곳이 본향임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의 은혜 속에 2년 동안 경조부에서 일백 수십 회를 장례식장을 찾아 위로하고 입관, 발인, 하관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덧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이 한번 호흡이 멈추면 그 순간부터 썩어지는 것을 보며 딱 한번 주신 생명 정말 값있고 고귀하게 주신 소명을 다하며 살겠다고 다짐해 본다.

장례식장에는 100년을 넘게 살아 축복 속에 가시는 분,

또는 젊어서 질병이나 사고로 어린 아이들과 어린 아내를 홀로 두고 안타까움 속에 가시는 분, 또는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하고 가시는 분, 또는 임종 직전 주님을 영접하여 평온 속에 가시는 분 등 다양한 모습이 있다. 그러나 모두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에 참 안식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과 평화를 누리리라 믿는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는 이별의 안타까움은 똑같아, 애통해 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같이 나누는 일 이야말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후일 또 그 가족들이 여러 곳에서 많은 이웃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천국의 삶이며,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김홍용 안수집사(6-21)

방과후학교 |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

방과 후 학교는 이제까지 3년 동안 많은 학생들과 함께 했다 교사 25명과 매달 평균 출석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이고 과학, 미술,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일어, 중국어, 영어성경 등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맞춤형교육을 하는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자신의 비전을 찾고 말씀으로 인도 받으며 학교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가정형편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부모님 대신 선생님들이 돕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방학 때에는 선생님들 손을 잡고 견학, 관람을 하고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 속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한다.

이제 4살에 접어드는 방과 후 학교는 이름도 '반가운

학교'로 개정하고 일주일에 한번 만나던 것을 두 번 만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2008년 1월 중에 지나간 날을 되짚어 보고 미래를 새롭게 꾸미기 위해 컨퍼런스를 하려고 한다.

그 동안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방과 후 학교를 어떻게 친히 이끌어 오셨나를 함께 묵도하기 원한다.

이제 고3 첫 졸업생을 배출해 냈고 이들이 또 자신들이 진 사랑의 빛을 갠기 위해 가르치는 자리에 아니, 나누는 자리에 서게 되어 그들의 손으로 또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명, 한명을 키우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종은 권사(2-5)

호스피스부 | 생명존중 호스피스부

폐암으로 관정을 받고 투병하는 동안 세례를 받은 한 교인이 봉사자들의 찬송 속에 지난 11월 27일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아래의 글은 호스피스봉사를 하며 남긴 병상일기이다.

봉사자 사무실로 환자 남편이 찾아왔다. 환자를 침대에 눕혀야하는데 도와달라고 한다. 욕창이 너무 심해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무척 아파한다. 도와드리고 나서 발을 주물러 드렸더니 오늘은 자신이 살아온 지나간 얘기를 하겠다고 한다. 암이 눈에 전이가 되어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환자는 말만 꺼내놓고 말을 잊지 못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얘기를 도와준다. 남편은 사랑의 간호사다. 매일 매일 환자가 먹을 다른 죽을 만들어 가지고 온다. 2년 전에 폐암인 것을 알았다 한다. 기침을 두 달을 계속해서 검사를 하였더니 폐암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병에 걸린 줄 알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한다. 노래를 불러 달라 하신다. 남편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야기 하니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라며...같이 손을 잡고 노래를 하며 환자분에게 다시 못 올 10월의 마지막 날을 보냈다.

이번 성탄절에 살아있어 함께 캐롤을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환자들이 힘들고 아파할 때, 그들과 같이 있어주어야 할 봉사자들이 바로 호스피스다. 육체적인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없지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를 같이 나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한다. 호스피스의 유일한 기쁨은 환자들의 웃음이다.

신형섭 안수집사(4-18)

학원선교부 기도 어머니회

든든한 기도후원자 황OO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엄마~!

저 DH예요... 어머니와 3월달에 처음으로 만났는데 어느덧 12월이 돼서 헤어져야 한다니... 빨리 지나가버린 시간이 원망스러워요...

2학년 올라와서 기도어머니라는게 있는지도 처음 알았고 또 너무 좋은거구나... 라는 것도 느꼈어요. 정말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근심 많던 하루라도 어머니를 만날 때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기쁠 수 있고 편했고 좋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머니 앞에서 더 어리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항상 베풀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늘 받기만해서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은 어려서 받은 거에 비해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작고, 작지만 나중에 정말 커서 어른이 됐을때는 물심양면으로 어머니께 보답할게요!!

노래선교단을 하면서 아침도 못먹고 다니고 매일 매점빵으로 아침을 때우곤 했었는데 신경 써주셔서 가끔은 아침도 챙겨주시고 따뜻한 코코아도 갖다주시고, 노래선교단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니덕분이에요...!!

비록 지금 이렇게 2학년이 끝나가면서 어머니와의 학교에서 만남은 끝나지만 앞으로도 계속 연락드리고 가끔씩 뵙고 해요. 모두 같이 모이구요.

일 년 동안 감사 드렸구요. 항상 기도할게요.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 해요.

항상 웃든든히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07. 12. 2 일요일 DH 올림



(이경자 권사)

1. 기도어머니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현재 4년째 기도어머니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신여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이 갔다. 그저 예쁘고 자식같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기도어머니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2. 기도어머니회를 하며 보람을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

아이들이 고2일때 매달 한번씩 만나는데, 그 아이들이 고3에 올라가면 여러가지 힘든 시기이니 만큼 기도요청을 해올 때가 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줘서 마음에 안정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해올 때 기도어머니회를 하는 보람을 많이 느꼈다.

3. 기도어머니회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매달 한번씩 보는데,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함께 할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다보니 아이들의 귀중한 시간을 좀더 효과적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교회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나 레퍼토리를 제공받는다면 좋을 것 같다.

최사라 기자

학원선교부에서 정신여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 어머니'로 함께 사역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김영숙 권사(011-9774-3062) 황장매 집사(016-715-1220)